

- 1. 주민체험훈련
- 2. 군경소방 위문
- 3. 지진대피훈련



# 실전과 같은 훈련 비상사태에 대비

비상대비 훈련 지원책 마련·통합 방위협의회 관련 조례 개정  
경보시설 신축·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등 민방위 시설 확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실 있는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인적·물적 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역 안보를 총괄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총 6회 개최했으며, 각종 비상대비 훈련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불안해안경비안전장비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한 을지연습도 적극 실시해 전시대비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주민참관단을 운영해

군과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대비태세 확립에 힘썼다. 아울러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0여명의 주민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부족한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대신면과 흥덕면에 경보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군은 올해에는 더욱 체계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비상사태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심원면 일대에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을 신축하고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와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며 연 6회 이상 민방위 훈련, 통합방위

협의회와 비상훈련 등 빈틈없는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재난재해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간에할단과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급경사지, 물놀이위험시설, 산사태우려지역, 재난취약계층 등의 상시 예찰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시적 훈련과 대비로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이 이뤄져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4. 을지연습 참관



5. 민방위 교육

국립순우리민족지원센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